

지역이동 잦을수록 소득 감소 “청년정책, 유입보다 정착 중요”

**산업연구원 청년층 정착 요소 분석
수도권 이동 ‘경제적 기회’ 영향
“충분한 일자리 확보 선결돼야”**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이 안 돼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반복될수록 경력 단절과 소득 정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사회관계까지 포함한 ‘정주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8일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청년 지역정책이 단순 유입 확대를 넘어 정착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착을 좌우하는 요소를 일자리(Work), 삶(Life), 문화·여가(Fun), 사회적 관계망(Engagement)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역 유형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중은 4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중은 21.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가운데 11.4%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재이동’을 경험했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단기간 내 수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기회였다.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이동 후 실질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잦은 지역 이동이 오히려 장기적 소득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이동으로 인해 직장 경력이 짧아지고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유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역시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거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지역민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경쟁의식 등이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 유입 정책에 앞서 지역 내 충분한 일자리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연구위원은 “지역의 여건과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이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2026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가 개막한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수질측정기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

기후부, ‘대한민국 국제물산업 박람회’ 개막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미래’ 주제

기후위기 대응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18일 막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상수도협회와 함께 20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기후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

련됐다.

박람회에는 총 21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물관리 제품과 기술을 홍보한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탄소중립 기술 등 최신 물관리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에서 해외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기후부는 해외 구매처 60여 곳을 박람회에 초청해 수출·구매 상담회를 운영한다. 이를 계기로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에너지 서비스 통합 플랫폼 오픈

**‘슬기로운 전기생활’ 구축
지원 제도 등 접근성 개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흠어져 있던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

한전은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전기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면서 전기요금 절감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너지 복지 혜택 안내,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 주요 서

비스는 지난 16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한전ON’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 산업체 등 다양한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서비스 39종이 통합됐다. 그동안 각 기관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한 번의 접속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기능인 ‘내 혜택 찾기’에서는 가구원 수나 자녀 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지원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또 주택·상가·공장 등 용도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와 보조금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전력 사용 시간대를 조정했을 때 예상되는 요금 절감 효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을 옮길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늘리면 보상을 받는 ‘플러스DR’ 제도 참여 시 예상 수익 정보도 제공된다.

플랫폼 오픈을 기념해 국민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오는 6월 15일까지 플랫폼 방문이나 에너지절약 관련 영상 시청 등 참여 실적에 따라 한전이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노후주택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양어사료 가격 안정화 나선다

제조업체 간담회… 가격 수준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양어사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수협사료 등 국내 주요 수산사료 제조업체와 함께 양어사료 가격 수준 및 향후 변동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등 양어사료 원재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어분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과 가격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원료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더해,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업체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어사료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사료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료 가격 안정과 양식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K-푸드’ 분야 강사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K-푸드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26년 상반기 신규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며 AI·디지털전환, 펫푸드·축산, 푸드테크 등 총 7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지원 신청은 상반기(3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와 하반기(6월1일부터 10월16일)로 나눠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양식은 공사 누리집과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수원,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본격화

현대건설 공동수급체 시공사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총용량 700MW) 토건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찰 금액은 약 527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준이다.

포천양수발전소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세 번째 양수발전 프로젝트로, 기존 영동-홍천에 이은 신규 사업이다.



포천양수발전소 조감도. /한수원

한수원은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해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인력 유입이 이뤄지고, 발전소 운영 단계까지 지역 지원사업이 병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난축맛돈’ 산업화 팔 걷어

생산성 향상·품질관리 강화

농촌진흥청이 제주 토종흑돼지 기반의 품종 ‘난축맛돈’의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 품종의 생산·유통·소비 체계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재래흑돼지의 육질과 흑모색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품종이다. 난축맛돈은 근내지방(마블링) 함량이 평균 10% 이상으로 일반 돼지(1~3%)보다 높고 풍미가 뛰어난 특징을 지녔다. 난축맛돈은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의미다.

이 품종의 산업화는 사육농가, 유통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난

축맛돈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품질 균일성과 품종 가치 보호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사양관리와 번식, 출하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난축맛돈의 산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난축맛돈은 우리 고유 가축 자원을 산업과 소비 시장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며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흑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